

## ‘포토키나 2010’ 9월21~26일까지 독일 쾰른 국제박람회장에서 개최

라인메세(주), 독일 포토키나 2010 설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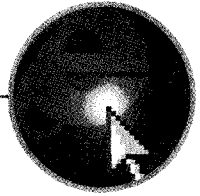
오는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독일 쾰른 국제박람회장에서 열리는 '2010 독일 쾰른 국제 사진 및 영상 기자재전(Photokina 2010)'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4월 15일 서울 밀레니움 힐튼호텔 앰버룸에서 열렸다. 독일 쾰른 박람회사 부사장과 독일 광학기기협회 대표가 직접 방한하여 최근 사진 및 이미징 시장의 동향과 2010 포토키나에 대한 상세한 소개의 시간을 가져 전시 참가사 및 관심 있는 업체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취재 | 박지연 기자

독일 쾰른 전시회 한국 대표부인 라인메세(주)(대표 · 박정미, [www.rmesse.co.kr](http://www.rmesse.co.kr))가 주최한 포토키나 전시회 설명회에는 올리버 쿠르트 쾰른 박람회사 부사장과 크리스티안 뮐러-리커 독일광학기기협회 대표가 직접 참석하여 최근 사진 및 이미징 시장의 동향과 2010 포토키나의 준비상황 및 올해 전시의 특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포토키나 한국공동관 모집 및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광학기기협회의 우태주 부회장과 참가사 및 관심 있는 업체들의 실무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전시회 설명회가 있던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크리스티안 뮐러-리커 독일광학기기협회 대표는 “2009년 전 세계에서 1억3000만대 정도의 카메라가 팔렸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7% 감소한 수치이고 세계 디지털 판매량의 9%정도가 일안 리플



렉스 카메라(SLR)이며 디지털 카메라의 70% 정도가 북미와 유럽에서 판매되었다”며 유럽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럽 카메라 시장을 좀 더 넓게 정의해보면 카메라 폰과 캠코더 등을 포함시켜 전 세계에서 27억대의 영상촬영장치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6억9000만대가 유럽에 있다”며 “포토키나에서는 입력장치로부터 저장장치를 거쳐 처리장치, 출력장치, 관련 서비스, 영상전송 기술, 액세서리 및 소모품에 이르는 영상작업흐름의 전 과정을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50년 이상 포토키나는 변화무쌍하고도 다채로운 사진과 이미징 산업의 세계적인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해왔다”며 “사진 및 영상업계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제품 세그먼트에서 만족할만한 매출실력을 올린만큼 이번에도 자신감을 갖고 2010년 포토키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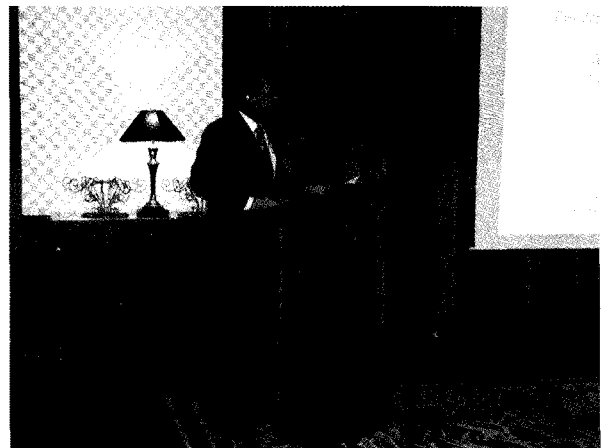
올리버 쿠르트 켈른 박람회사 부사장은 “올해 전시회에는 삼성, 캐논, 후지, 엡손, 휴렛패커드, 카시오, 파나소닉 등 최고의 메이커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50여개국 1,300여 참가사들이 켈른에서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며 “지난 수년간 성공적인 진행 노하우를 살려 2010 포토키나도 다시 한 번 세계 이미징 시장을 망라하는 박람회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2년마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포토키나는 50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진영상 관련 무역박람회다.

2010 포토키나에는 한국광학기기협회와 함께 건영라벨, 다보미시스템, 희망개발, 산주, 엘씨코퍼레이션, 오로라라이트뱅크, 현대포토닉스, 매틴, 원배경, SMDV, C&J, KPS디자인, KISUN, 플러스젯, 동양코리아, 애니디카, 이탈라인터내셔널 등 17개사가 한국 공동관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 '2010 독일 켈른 국제 사진 및 영상기자재전(Photokina 2010)'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4월 15일 서울 밀레니움 힐튼호텔 엠버룸에서 열렸다.



▶ 크리스티안 뮐러-리커 독일광학기기협회 대표가 <최근 사진과 이미징 시장의 변화>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한국광학기기협회 우태주 부회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한국공동관 참가업체들을 대표하여 포토키나 전시회측에 건의사항 전달 및 한·독 광학기기협회의 긴밀한 협조 및 공조방안을 제안했다.